

요골두 금속 치환물의 국내 사용 Metallic radial head prosthesis in Korea

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문준규 · 박종웅 · 한상환 · 장기모

서 론

해부학적 복원이 힘든 요골 골두의 분쇄골절은 여전히 치료가 힘들다. 절제술이 선택될 수 있지만 다른 골절 및 연부조직 손상과 동반된 복합 손상에서는 요골두의 보존이 중요하다. 최근 금속형 요골 골두의 국내 수입으로 치료 선택이 넓어졌지만, 의료 보험 불인정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수술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저자들은 총 7예의 금속형 요골 골두 치환술을 경험하여 그 적응증을 바탕으로 요골두 치환술에 대한 필요성을 소개하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

2006년 4월부터 고려대학교 정형외과 교실에서 경험하였던 총 7예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적응증, 수술 중 소견, 수술 후 상태 등을 조사하였다. 금속형 치환물은 국내에 수입된 양극성 유형의 시멘트형 치환물(Tornier SA.Saint-Ismier, France)을 사용하였다.

결 과

시행한 총 7예는 주관절 복합 골절 등의 급성 손상 6예와 요골두 불유합으로 시행한 만성 손상 1예였다. 전예에서 요골두 골절 에 1~2 곳의 다른 골절 및 연부조직 손상을 동반한 복합 손상이었다. 치환물에 대한 부담은 산재 환자 2예를 제외한 5예에서 환자개인이 부담하였다. 수술 소견상 1예에서는 요골두의 해부학적 정복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였고 6예에서는 정복 시도가 힘들었다. 술 후 통원 관찰 시 요골 골두 치환물의 문제로 인한 합병증은 보이지 않았다.

결 론

요골 골두의 분쇄를 포함한 주관절의 복합 손상에서 금속형 치환물은 술전 계획하에 준비되어야 하며, 의료 보험의 인정으로 의사 및 환자들의 치료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.

색인 단어: Radial head, Metallic prosthesis